

강직을 동반한 제 2형 SLAP 병변의 관절경적 봉합술 후의 임상적 결과

포항성모병원

문기혁 · 남일현 · 이영현 · 안길영

목 적

강직을 동반한 제 2형 SLAP 병변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후에 강직 유무에 따른 임상적 결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2005년 6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관절경적 봉합술을 시행한 제 2형 SLAP 병변 환자 중강직군 13예, 비강직군 23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가 27예, 여자가 9예이었고 평균 나이는 48.1세, 평균 추시 기간은 7개월이었으며 증상 발현 시부터 수술까지의 평균 기간은 9.5개월이었다.

결 과

최종 추시시 강직군과 비강직군의 평균 VAS 점수는 각각 1.5, 1.1이었고 ROWE의 점수는 92.3점, 98.9점으로 두 군 모두 수술 전에 비해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다($P < 0.001$). 양군의 술 후 결과를 비교할 때 통증과 ROWE 점수는 양군간의 차이가 없었다($p > 0.05$). 강직군에서 평균 관절 운동 범위는 수술 전에 비해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으며($p < 0.001$) 외전, 외회전, 90도 외전에서 외회전에서 비강직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적은($p < 0.05$) 운동 범위를 보였으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. 재 수술 또는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.

결 론

강직을 동반한 제 2형 SLAP 병변에서 관절막 유리술과 관절경적 봉합술은 통증 감소 및 관절 운동 범위 증가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강직을 동반하지 않은 제 2형 SLAP 병변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색인 단어: 견관절, SLAP 병변, 관절 강직, 관절경적 봉합술